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처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는 어김없는 사실로, 나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발명의 생활화를 위해 이 말을 처음 지상에 발표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8년동안이나 실로 많은 글을 써야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명은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발명은 과학자나 박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물건들이 모두 발명품이고, 첨단기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의 보통사람들이 발명했고, 이 같은 추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도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았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발명은 반드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이어야만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의 문조차 열지 않는 것이었다.

생활필수품의 발명은 대부분이 생활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공업소유권(특허)중 실용신안(기존 발명품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고안)이나 의장(기존 물건의 모양을 보다 아름답게 디자인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각각 10년과 8년 독점사용권이 주어지고, 등록을 받는 순간 정부가 인정하는 발명가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믿으려 들지 않을 때는 안타깝다 못해 답답하기까지 했다.

특히 이같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필수품에 속하는 발명일수록 첨단기술제품보다 상품화가 쉽고 시장도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명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까지 제시해도 강 건너 불구경식일 때는 분통이 터지기도 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되는 공업소유권이 연간 10만건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있다.

발명의 생활화

王 然 中
〈「발명특허」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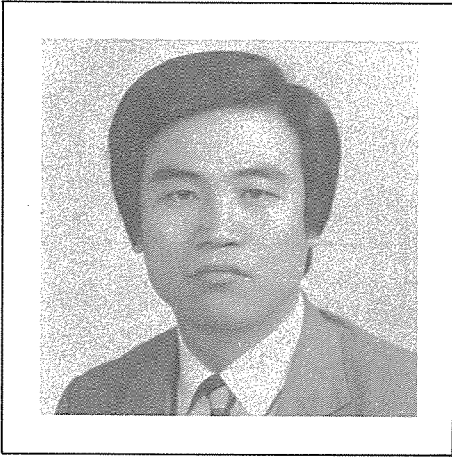
전국 초·중·고·대학에는 1987년부터 과학반과는 별도로 발명반이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자신들의 발명을 공업소유권으로 출원도 시작했다.

나는 이들을 위해 3년동안 교재를 썼고, 정부는 이들을 위해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급함과 함께 출원수수 및 비용일체를 면제해주고 있다. 발명가와 발명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10여종에 이르고 있다.

나는 전국민의 발명의 생활화를 위한 책도 5권(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발간해 무료배포)을 썼다. 매달 10여개의 신문·잡지에 밤을 새워 글을 쓰기도 했다. 이는 결코 자량이 아니다.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를 입증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신문과 잡지들을 나를 발명평론가 또는 발명저널리스트로 소개하고 있다. 국민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출판사의 원고청탁도 밀려들고 있다. 휴가는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탈고한 3천매의 원고야 곧 목직한 책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을 이뤄내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고난은 실로 컸다.

공부한 것이 문학이었고, 몇년동안 신문기자를 한 경험이 있어 글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발명의 이론이 달려 받은 고통은 실로 컸다. 발명의 생활화를 위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도 없었다. 과학에 관한 책은 수없이 많은데, 발명에 관한 책은 번역물 한두권이 고작이었다. 수많은 과학저술인들이 하나같이 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다.

과학과 발명은 형제와 같아서 부모는 같지만 자라면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특히 선진국일수록 對국민운동의 경우 과학의 생활화 못지 않게 발명의 생활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는도 잘 알고 있을 과학저술인들이 왜, 무엇때문에, 발명을 외면한 것일까? 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몇몇 관계자를 찾아 답을 찾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과학속에 발명이 있지 않는냐는 대답 뿐이었다. 어느 누구(저술인과 출판인등)도 발명을 과학과 분류해서 생각하려 들지 않았다. 뒤

늦게 안 사실이지만 이같은 생각은 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3년 과학의 날을 제정하면서 1957년에 제정된 발명의 날을 상공의 날에 통폐합해 버렸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이미 40여년 전부터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일본 발명협회 회장이기도한 과학저술인 도요자와 도요오(豊澤豊雄)씨를 비롯한 많은 과학저술인들이 발명 책자 집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쓰여진 일본의 발명 책자들은 일본인들을 '발명의 생활화'로 이끄는 데 손색이 없었다. 그들의 책을 읽고 있노라면 어느 사이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복잡하고 딱딱한 이론까지도 사례 위주로 쓰여진 그들의 책은 한편의 콩트를 읽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 나는 '한국판 도요자와 도요오'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명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저술인협회 회원이 되어, 발명 책자 발간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지난 여름, 그동안 꾸준히 지켜보며 격려하고 이끌어준 월간 과학교육 취재부 김무웅부장의 도움으로 결실을 보았다. 제대로 견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햇병아리 과학저술인이지만 기라성같은 선배들이 있고, 젊음이 있음으로써 자신감이 넘친다.

발명의 생활화와 함께 과학의 생활화에도 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기회에 과학저술인들의 발명의 생활화에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감히 강조하건데, 사람(人)이 홀로 설 수 없듯이 과학과 발명도 홀로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두 분야 모두 생활화가 가능한 것이다.